

Searching for the direction of youth activities through a survey on youth actual conditions-focusing on youth in Gyeonggi-do

Kwon, Il Nam¹⁾ · Jeon, Myong Sun²⁾ · Seo, Jae Bum³⁾

¹⁾Professor, Myongji University · ²⁾Lecturer, Hansei University · ³⁾Manager, Gyeonggi-do Youth Service Center

Background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of youth activities based on a survey on youth activities in Gyeonggi Province.

Methodology/Approach: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153 adolescents about the degree and level of their participation in activities.

Findings/Conclu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age in the level of youth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and the channels to know youth facilities were through friends and seniors and juniors, and youth club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and general activities were highly engaged. Second, the regrets of youth facilities were lack of diversity in programs, lack of programs that can represent the region, and lack of publicity. Third,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was recognized as meaningful and important. Fourth, the activities that the region wanted to provide were highly demanding for activities that enhance psychological self-esteem, activities that enjoy comfortable rest and leisure,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Fifth, satisfaction expectations for the activity areas provided by youth faciliti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and region. Sixth, as facilities that were desired to be built in the region, the need for career experience-oriented facilities and sports specialized facilities was most demanded. Seventh, it was possible to perform various activities non-face-to-face, but showed difficulties in how to handle necessary equipment and develop non-face-to-face activities. In addition, youths in northern Gyeonggi and southern Gyeonggi showed differences in the facilities they wanted to be built in the region.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Gyeonggi-do youth'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nd direction of youth activities were suggested.

Keywords: youth activities, youth needs, Gyeonggi youth, Survey on actual conditions

Corresponding Author: Jeon, Myong Sun

Lecturer, Hansei University

ORCID: <https://orcid.org/0000-0002-9277-1202>

Email: synahbro@hanmail.net

Received: March 1, 2021 Revised: March 25, 2021 Accepted: March 27, 2021 Publication: March 31, 2021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모색 - 경기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권일남¹⁾ · 전명순²⁾ · 서재범³⁾

¹⁾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²⁾한세대학교 강사 · ³⁾경기도활동진흥센터장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론/접근: 이를 위해 청소년 215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활동참여정도와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결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와 선후배를 통해서가 많았고,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일반적활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시설의 아쉬운 점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가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활동에는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 편안한 쉼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다섯째,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영역에 대한 만족 기대가 달랐다. 여섯째, 지역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시설로는 진로체험중심의 시설과 스포츠특성화시설에 대한 필요를 가장 크게 요구하였다. 일곱째, 비대면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필요 장비를 다루는 법, 비대면활동 개발방법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청소년은 지역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시설(경기북부-스포츠 특성화시설, 진로체험 중심 특성화시설, 경기남부-녹음, 제작이 가능한 활동시설, 진로체험 중심 특성화시설)에서 차이를 보였다.

시사점: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와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소년활동, 청소년의 요구, 경기도 청소년, 실태조사

* 본 연구는 2020년 경기도활동진흥센터 연구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교신저자 : 전명순

한세대학교 강사

ORCID: <https://orcid.org/0000-0002-9277-1202>

Email: synahbro@hanmail.net

투고일: 2021. 03. 01. **심사일:** 2021. 03. 25. **게재확정일:** 2021. 3. 27. **발행일:** 2021. 03. 31.

I. 서론

청소년활동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를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능력 즉 균형적 성장을 위한 역량개발을 갖추도록 함에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이고, 특히 발달과정에서 반드시 획득되어야 할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 건전한 자아개념 형성 등의 방법을 구현하고자 각종 체험적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을 해 나가는 활동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식도 향상된다[1].

청소년활동의 유형별로 특이한 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활동을 봉사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봉사경험이 진로발달이나 주관적 안녕감, 공동체 의식 등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사회적 기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초기의 청소년기본법의 구현과정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의 노정을 겪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야외활동, 캠프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곧 수련활동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수련활동은 자연권이라는 대규모 시설의 확장을 불러 일으켰고 동시에 정부정책 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설확대, 민간영역에서 수련활동증진 등으로 마련되었다. 수련활동의 확장은 자연과 야외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경진대회 등과 같은 청소년지도자에게는 단순하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체중심 활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다. 이후 청소년활동의 수요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기 위한 체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청소년활동 변화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같은 현장중심, 체험활동은 외부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2009년 신종플루 감염,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5년 메르스 유행,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 대형사건과 안전관련 사건사고의 영향으로 다수 또는 외부활동이 직격탄을 받았으며, 청소년활동의 수렴을 억제하는 각종 사전신고제, 의무 인증제 등과 같은 제도적 압박은 청소년활동이 위축을 넘어 고사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청소년활동은 경험학습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경험에서 안전과 청소년활동의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요구는 4차산업혁명과 같은 미래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의 수용, 자신의 미래진로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는 체험의 다양화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권일남·전명순·김정률[3]은 청소년자기주도활동의 개념정의와 특성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자아인식의 관점을 토대로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한 방법론과 성향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원하는 또 다른 관점은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활동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연구[4]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더이상 주먹구구식 접근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혁신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맞추는 청소년활동의 개편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균형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②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 ③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정책의 정교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지원과 함께 핵심역할을 각각의 기관에서 충실히 이행해 왔는가를 판단하는 등 나름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0년 3월말 현재 인구규모가 13,703,516명에 이르고 있고, 이 인구규모는 대구+경북+부산+경남을 합친 숫자(1,200만명)만큼이며, 광주+전남+전북의 인구 약 500만명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서 더욱 청소년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와 지리적 특성으로 규모의 확대를 볼 수 있지만 청소년정책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핵심지역에 서울특별시와 자리잡고 있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수이북, 한수이남으로 나누어져 경기도의 행정운영이 한강이남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강이북의 경우 지리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간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왔고, 한강이북의 경우 접경지역, 교통의 불편 등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 접근이나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최근 청소년정책기구의 변화에서 경기도는 청소년 시설의 통합적 운영으로 재단화가 활발하게 이행되고 있는 바 경기도지역의 청소년재단이 18개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경기남부지역에 포진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은 4개소(이천, 의정부, 연천, 고양)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내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한수이북 지역의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수이북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청소년의 권리증진, 청소년활동기회 보장, 미래사회의 적응역량 강화 등의 실제적 지원의 부족과 문제점을 충분히 지각하며 개선점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지역의 청소년이 어떠한 활동을 원하며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시적 역량강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는 활동과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변혁과 지원, 향후 더 나은 청소년활동추진에 필요한 현장중심 요구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방향을 얻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청소년이 처해 있는 청소년활동의 수준과 참여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현 상황에서의 경기도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셋째, 경기북부-경기남부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활동의 수준과 방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경기도 청소년들의 요구를 알고자 실태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태조사방법은 청소년활동 참여수준과 요구 등을 위한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설문을 통해 청소년 총 2,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설문문항의 구성

문항내용	문항수
청소년활동의 참여수준	7
청소년활동의 보편적 인식도	11
미래사회를 위한 청소년활동 요구도	23
청소년시설 제공 활동 영역의 만족 정도	9
청소년기관 내 신설 시설 필요도	7
비대면시대 청소년활동의 요구와 만족도	9
합계	66

청소년의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시설의 접근성(인지도, 참여경험, 횟수), 프로그램의 다양성(만족도, 필요성), 참여희망 활동의 요구(신규활동수준 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참여정도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수준을 파악하였고, 경기남부, 북부지역간 환경수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SPSS 23으로 통계분석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한 검증은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자 37.7%(812명), 여자 62.3%(1,34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17세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8세(33.5%), 14세이하(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경기남부 거주 청소년이 55.6%로, 경기북부 거주하는 청소년 4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자	812	37.7	37.7	37.7
	여자	1341	62.3	62.3	100.0
	전체	2153	100.0	100.0	
연령	14세이하	190	8.8	8.8	8.8
	15세	148	6.9	6.9	15.7
	16세	168	7.8	7.8	23.5
	17세	778	36.1	36.1	59.6
	18세	721	33.5	33.5	93.1
	19세이상	148	6.9	6.9	100.0
	전체	2153	100.0	100.0	
지역	경기북부	895	41.6	42.8	42.8
	경기남부	1196	55.6	57.2	100.0
	전체	2091	97.1	100.0	

2. 분석 결과

가. 청소년활동의 참여수준

1) 거주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 정도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여부는 성별의 경우 남자(36.4%)보다 여자(45.0%)가 청소년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세 이하(14세이하(55.8%), 15세(55.8%), 16세(54.8%))

집단에서는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50%이상으로 높지만, 17세 이상에서는 32.5%(17세), 42.5%(18세), 43.9%(19세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의 경우 39.5%로 청소년이용 경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시설 이용횟수

연령별로 14세이하의 경우 주1회 정도가 2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달에 1~2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로 나타났다. 15세는 27.8%가 주1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달에 1~2회 정도로 이용한다고 24.4%로 나타났다. 16세(27.4%), 17세(31.5%)는 1년에 한두번 이용한다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29.7%), 19세이상(32.4%) 연령에서는 한달에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

친구,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남 40.6%, 여 39.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평소알고 있어서가 남자 18.4%, 여자 21.3%로 나타났다. 14세 이하의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23.4%이고, 15세(35.6%), 16세(46.2%), 17세(46.3%), 18세(41.7%), 19세이상(36.9%)의 연령에서는 친구, 선후배를 통해서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4) 참여한 활동 현황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 현황은 남자의 경우 청소년동아리(35.6%)활동과 일반적활동(32.7%)에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청소년동아리(47.9%)와 청소년자원봉사활동(32.3%)으로 나타나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 현황에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은 14세이하(41.3%), 15세(42.0%), 16세(43.6%), 17세(41.6%), 18세(46.5%), 19세이상(44.9%)의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모두 청소년동아리가 35.9%, 49.6%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33.4%, 30.4%), 일반적활동(29.8%, 28.4%) 등의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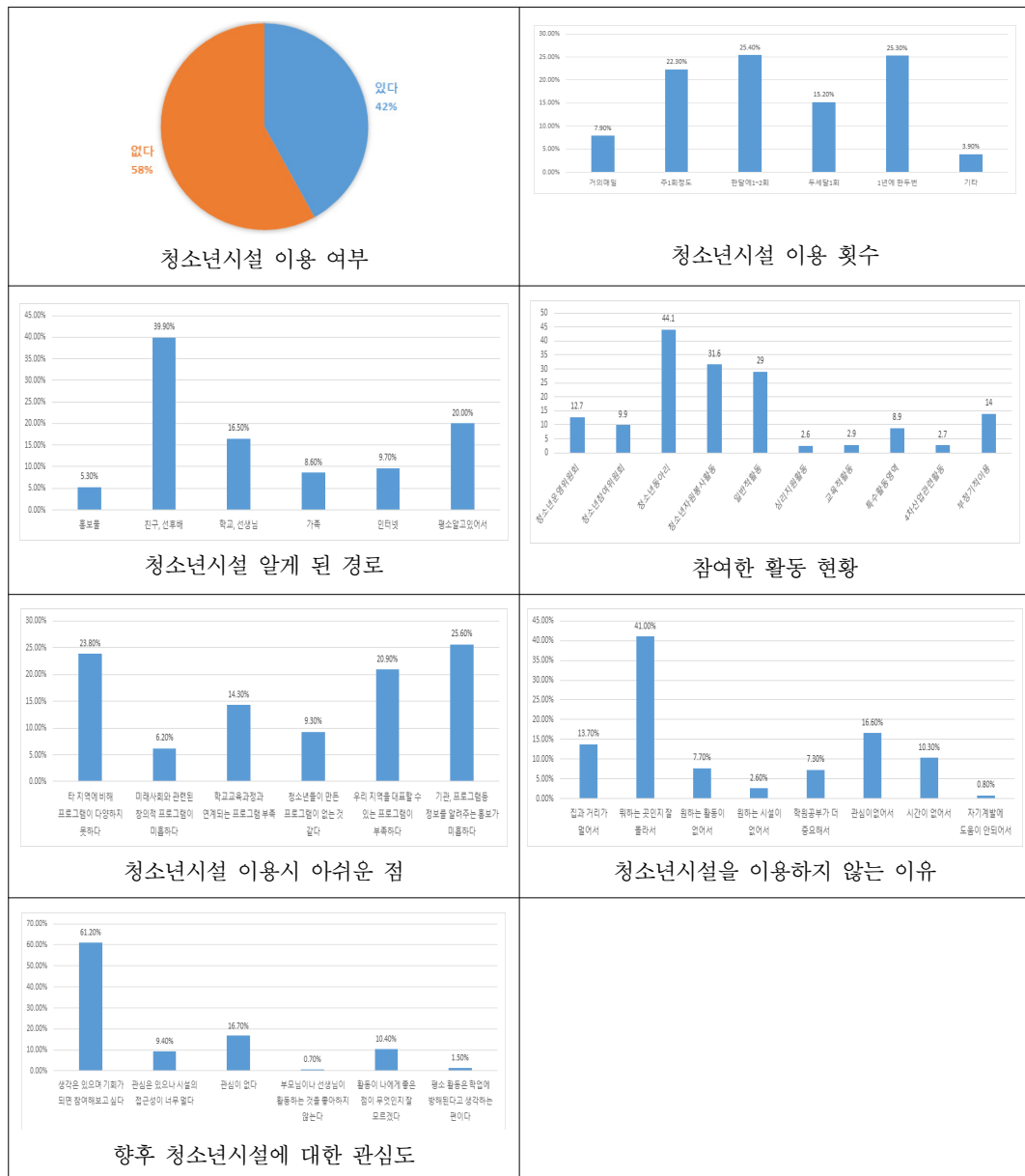
5) 청소년시설 이용시 아쉬운 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을 대부분의 연령에서 20%이상 아쉬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14세이하의 경우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33.0%)과 대표프로그램 부족(23.4%)을 아쉬운 점으로 응답하였고, 15세는 대표 프로그램 부족(32.0%)과 홍보부족(20.0%)이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세와 19세이상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21.4%, 25.8%)과 홍보 부족(23.8%, 27.4%)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7세와 18세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23.7%, 23.6%)과 홍보 부족(29.4%, 26.8%) 이외에도 대표프로그램 부족(20.4%,

20.7%)이 청소년시설 이용시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6)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뭐하는 곳인지 잘 몰라서가 40.7%(남자), 41.2%(여자)



(그림 III-1) 청소년활동의 참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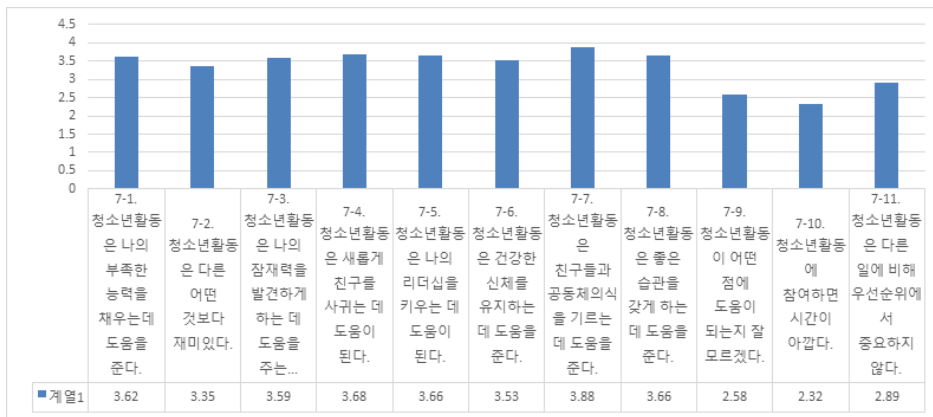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가 20.6%(남), 14.6%(여)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약 27.7%이상에서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15세는 관심이 없어서(21.3%), 16세 집과 거리가 멀어서(27.7%), 19세이상에서 관심이 없어서(20.4)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7) 향후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심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생각에 대한 질문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생각은 있고,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남자(54.7%), 여자(66.2%)). 14세 이하(76.3%), 15세(64.3%), 16세(60.2%), 17세(64.8%), 18세(54.6%), 19세이상(59.4%)의 모든 연령에서 향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생각이 있고,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겠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의 전체 내용은 [그림 III-1]과 같다.

나. 청소년활동의 보편적 인식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보편적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채우고,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에도, 리더십을 키우는 데에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친구들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새로운 친구 사귀고, 자신의 잠재력 발견 및 리더십 함양에 도움을 더 받음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건강한 신체 유지 및 새로운 친구 사귀는 데 도움이 되는 점에서 경기북부 청소년보다 경기남부 청소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2] 청소년들의 활동인식도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시간이 아깝지 않고, 청소년활동이 다른 일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시간이고, 청소년활동이 자신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별에서 보통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것보다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청소년들의 활동인식도의 평균은 [그림 III-2]와 같다.

다. 미래사회를 위한 청소년희망활동 요구도

지역의 청소년시설에서 앞으로 만들어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활동에 대한 결과는 건강영역(축구, 농구, 헬스 등 건강한 체육스포츠활동,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 특별한 목적보다는 편안한 쉼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 건강한 가족과 부모교육지원활동), 과학영역(방송이나 음향, 인터넷, 유튜브영상 등 미디어활동, 우주, 천체, 농생명, 바이오 등 과학기술활동, 드론, 3D, 메이커교육, 컴퓨터,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활동, 문제해결, 창의성 등 혁신적 아이디어발굴활동), 교류영역(국내 및 해외탐방 등 교류활동, 친구관계, 학교적응 등 인간관계개선 교류활동, 역사교육 및 역사유적지 탐방 교류활동), 모험영역(청소년끼리 여행 등 모험탐사계획을 하면 지원해 주는 활동, 캠프, 수련, 야영, 해양, 수상, 도전 등 모험을 중요시하는 활동), 문화영역(음악, 미술, 연극, 전통놀이 등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활동, 밴드, 댄스, 뮤지컬 등 동아리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봉사영역(지역사회환경개선, 어르신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알바, 노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평화, 인권, 통일 등 사회문제탐색 자원봉사활동), 진로영역(자유학기대비 진로박람회나 전시활동, 바리스타, 파티쉐 등 유명직업인 만남과 같은 진로지도활동, 창업정보, 창업방법, 창업체험 등 진로지원활동), 참여영역(청소년 스스로가 주제를 내고 만드는 자기주도활동, 청소년선거권, 참여능력개발을 위한 활동)의 활동의 필요가 5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우주, 천체, 농생명, 바이오 등 과학기술활동, 문제해결, 창의성 등 혁신적 아이디어발굴활동, 캠프, 수련, 야영, 여행, 수상, 도전 등 모험을 중요시하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요구는 70%이상의 필요를 보인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 특별한 목적보다는 편안한 쉼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 청소년알바, 노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의 필요와 더불어 학교 등 생활환경에서 고단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알바, 노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알바와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영역에서 축구, 농구, 헬스 등 건강한 체육스포츠활동은 남자청소년이,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은 여자청소년이 더 많은 필요를 나타내 건강영역의 활동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고 여가를 즐기는 활동에 있어서 모두가 원하는 활동으로 나타났고, 건강한 가족과 부모교육 지원활동에 대한 필요는 높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간섭, 잔소리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과학영역에서는 방송이나 음향, 인터넷, 유튜브영상 등 미디어활동, 드론, 3D, 메이커교육, 컴퓨터,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활동 필요가 6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교류영역에서는 국내 및 해외탐방 등 교류활동, 친구관계, 학교적응 등 인간관계개선 교류활동은 60%이상의 필요를 나타냈으나 역사교육 및 역사유적지 탐방 교류활동(56%)은 다른 활동과 비교할 때 그리 높은 필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국내 및 해외탐방 등 교류활동에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요구도가 더 높았고, 경기북부청소년보다 경기남부청소년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관계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험영역에서는 청소년끼리 여행 등 모험탐사계획을 하면 지원해 주는 활동에, 문화영역에 지역문화예술축제, 동아리 문화예술축제, 봉사영역, 진로, 참여영역 전반에 있어서 60%이상의 필요를 나타냈고,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영역에서 창업 정보, 창업방법, 창업체험 등 진로지원활동, 청소년 스스로가 주제를 내고 만드는 자기주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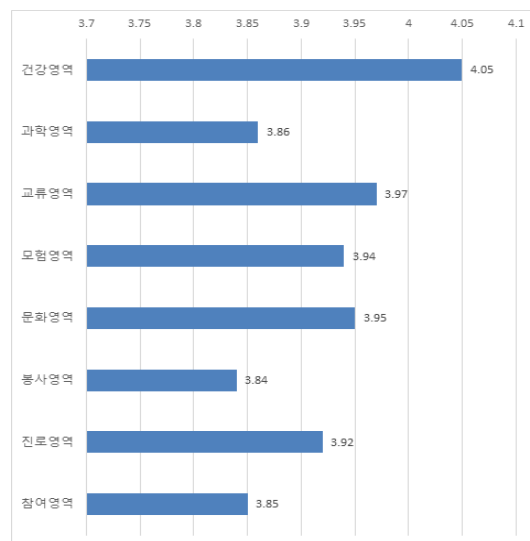
(그림 III-3) 청소년들의 희망활동 영역 수준

에서 경기북부청소년보다 경기남부청소년의 요구가 더 많았다. 이는 여러 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고, 특히 여행에 대한 것과 문화활동, 체험형 진로활동, 자기주도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단조로운 생활 가운데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희망활동 영역 평균은 [그림 III-3]과 같다.

라. 청소년활동의 추진을 위한 시설요구도

1) 청소년시설 제공 활동 영역의 만족 정도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영역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영역 73.4%, 과학영역 63.3%, 교류영역 68.5%, 모험영역 67.5%, 문화영역 68.1%, 봉사영역 64.3%, 진로영역 66.5%, 참여영역 62.8%로 대체적으로 만족할 것이다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강영역과 과학영역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만족 기대가 높았고, 그 외 영역(교류영역, 모험영역, 문화영역, 봉사영역, 진로영역, 참여영역)에서는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만족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 건강영역과 과학영역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령에 있어서는 봉사영역에서 14세이하, 17세, 18세, 19세이상에서 만족 기대가 높았고, 참여영역에서 14세이하, 16세, 17세, 18세, 19세이상에서 만족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봉사영역에서는 15세, 16세는 만족 기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 참여영역에서는 15세의 만족 기대가 낮게 나타나 봉사와 참여영역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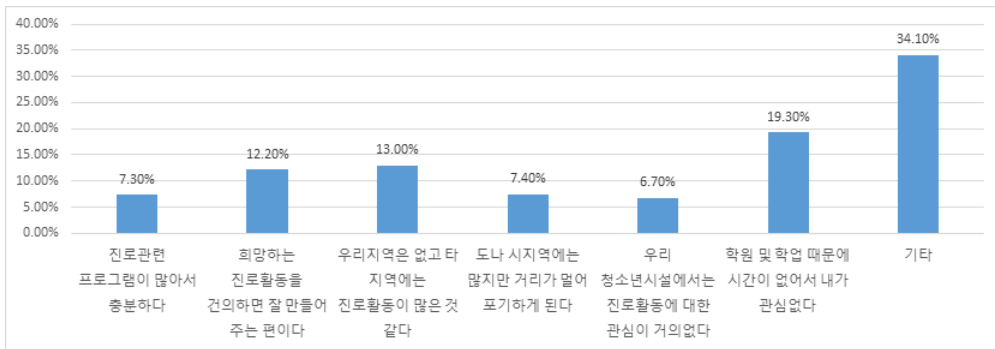


(그림 III-4)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영역의 만족 수준

부 청소년에 비해 경기남부 청소년이 교류영역, 모험영역, 문화영역에 만족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이 있으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만족 기대가 다르므로 맞춤형활동의 제공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평균은 [그림 III-4]와 같다.

진로활동제공정도에 있어서 학원 및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관심없다(19.3%), 우리 지역은 없고 타 지역에는 진로활동이 많은 것 같다(13.0%), 희망하는 진로활동을 건의하면 잘 만들어 주는 편이다(12.2%)의 순으로 지역의 진로관련 활동프로그램 제공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시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없음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없는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건의했을 때는 잘 만들어 주는 편으로 답해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의 요구가 있으면 진로활동을 제공해 주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으로 보인다. 청소년 스스로가 관심있게 참여하고 싶은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영역을 제시하도록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활동 제공 정도는 [그림 I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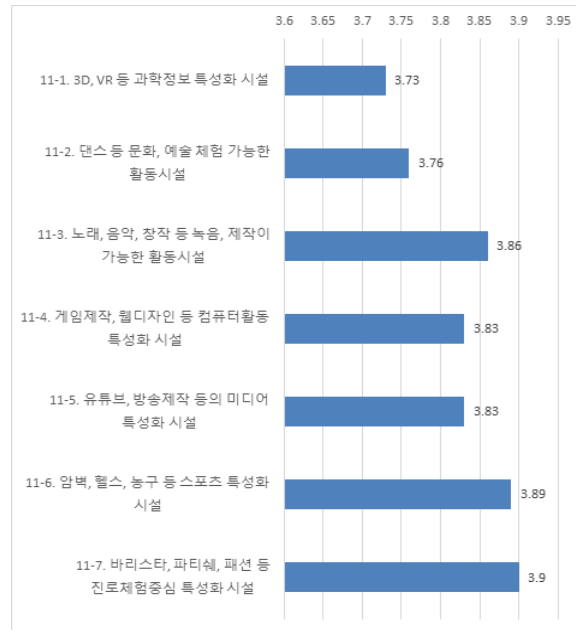


[그림 III-5] 진로관련 프로그램 제공 정도

2) 청소년기관 내 시설 시설 필요도

지역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3D, VR 등 과학정보특성화시설 58.1%, 댄스 등 문화, 예술 체험가능한 활동시설 58.6%, 노래, 음악, 창작 등 녹음, 제작이 가능한 활동시설 62.6%, 게임제작, 웹디자인 등 컴퓨터활용 특성화시설 61.6%, 유튜브, 방송제작 등의 미디어특성화시설 61.9%, 압력, 헬스, 농구 등 스포츠특성화시설 64.1%, 바리스타, 파티쉐, 패션 등 진로 체험중심 특성화시설 65.7%로 모든 시설에 대한 필요를 표현하였고, 특히 진로체험중심의 시설과 스포츠특성화시설의 필요를 가장 크게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 도서관, 연습실, 컴퓨터 등의 요구가 있어 청소년들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원했고, 스포츠를 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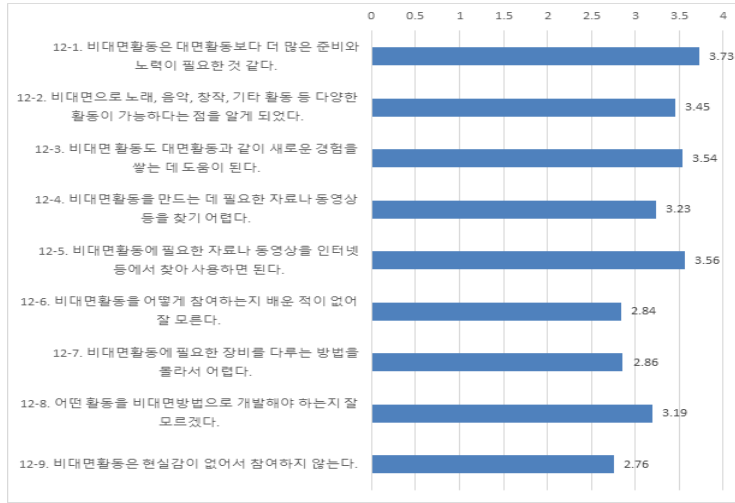
수 있는 시설, 녹음, 제작이 가능한 시설, 컴퓨터활용 시설, 미디어시설 등을 원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체험을 하고자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고 싶고,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관 내 시설 필요도에 대한 평균은 [그림 III-6]과 같다.



[그림 III-6] 청소년이 원하는 시설과 특성화 시설

마. 비대면시대 청소년활동의 요구와 만족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시대가 도래하고, 청소년활동의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는데, 비대면활동은 대면활동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필요하고(59.9%), 비대면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47.5%), 비대면활동 또한 대면활동과 같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51.5%) 있었다. 비대면활동시 어려움들에 대해 비대면활동이 필요한 자료나 동영상 인터넷 등에서 찾아 사용하면 된다(51.1%), 비대면활동 참여 방법에 대해 잘 모르지 않는다(36.8%), 비대면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어렵지 않다(34.5%), 비대면활동 개발방법 잘 모르겠다(36.8%), 비대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23.9%)로 나타났다. 비대면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다루는 방법, 비대면활동 개발방법 등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청소년이 모든 연령에서 상당수 있었다(개발방법 잘 모른다 14세이상(26.8%), 15세(31.8%), 16세(34.5%), 17세(36.6%), 18세(39.4%), 19세이상(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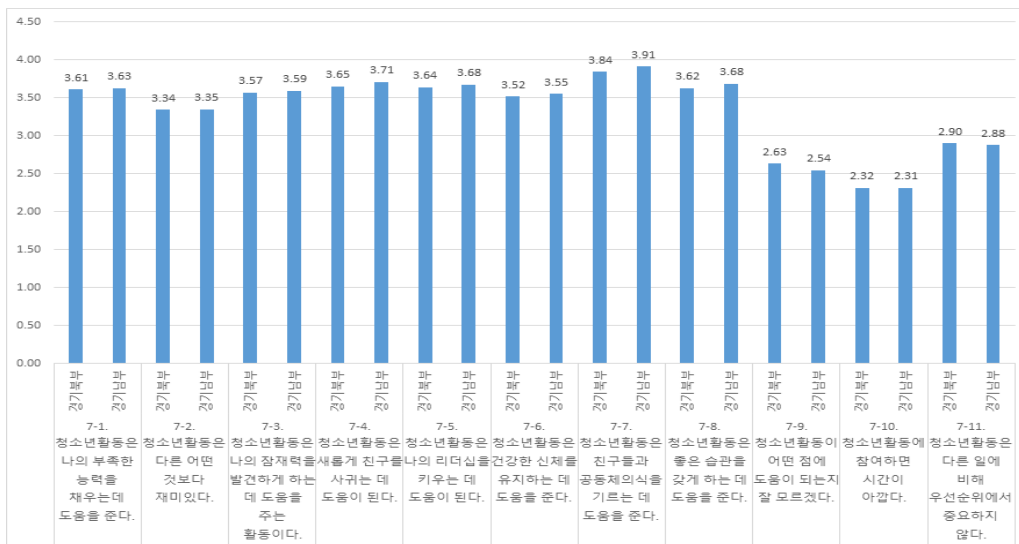


(그림 III-7) 비대면활동에 대한 장단점 인식

바. 경기북부-경기남부 청소년 간 차이 결과

1) 청소년활동의 활동 인식도

청소년활동에 대해 경기북부, 경기남부 청소년 모두 재미있게 생각하고,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보았고, 능력 배양에 대한 인식은 경기남부 청소년이 경기북부 청소년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북부 청소년들이 경기남부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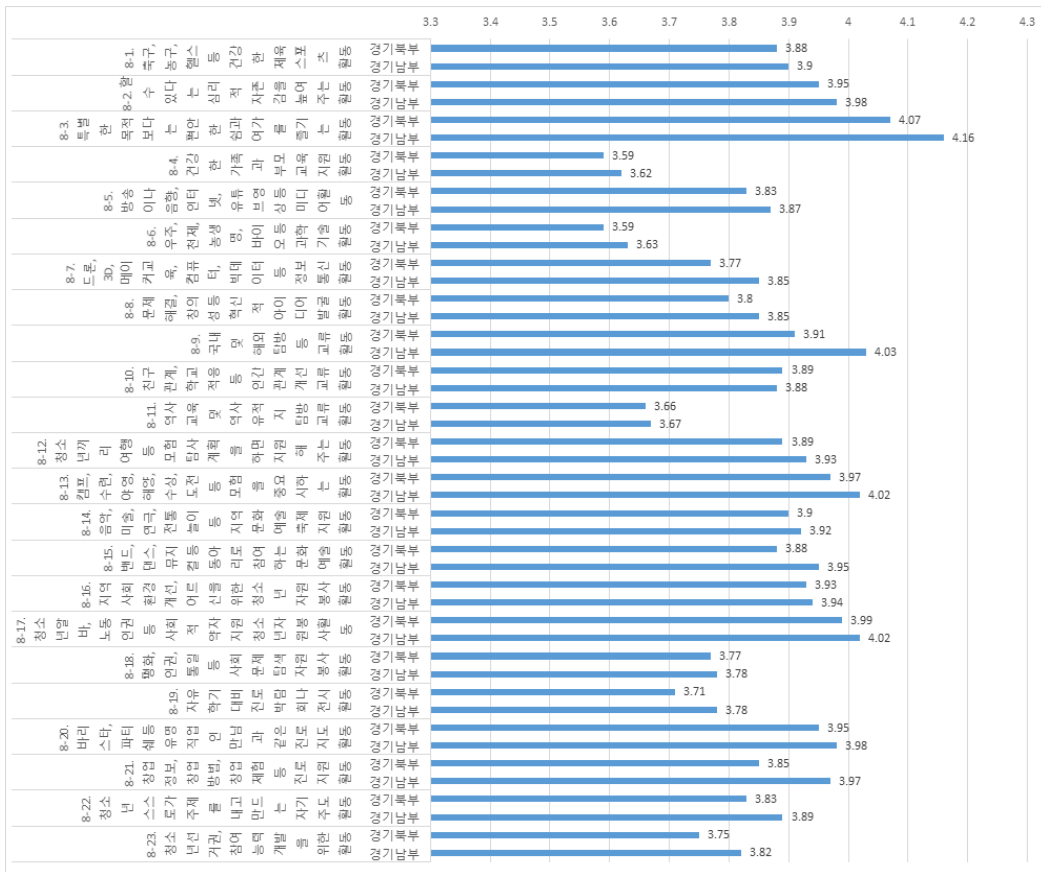


(그림 III-8) 청소년활동의 활동 인식도(경기북부-경기남부)

에 비해 청소년활동이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활동참여가 시간 아깝게 여겨지고,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경기북부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희망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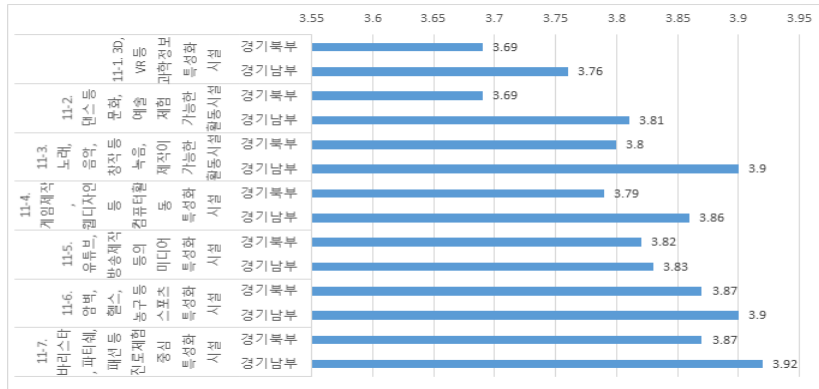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활동에 경기북부-경기남부 청소년 모두 필요성을 나타냈다. 특히 편안한 쉼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경기북부 청소년은 경기남부 청소년에 비해 요구도가 낮았으나 쉼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국내 및 해외탐방 등 교류활동,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유명직업인 만남과 같은 진로지도활동,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요구도가 높은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9) 청소년 희망활동 영역(경기북부-경기남부)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만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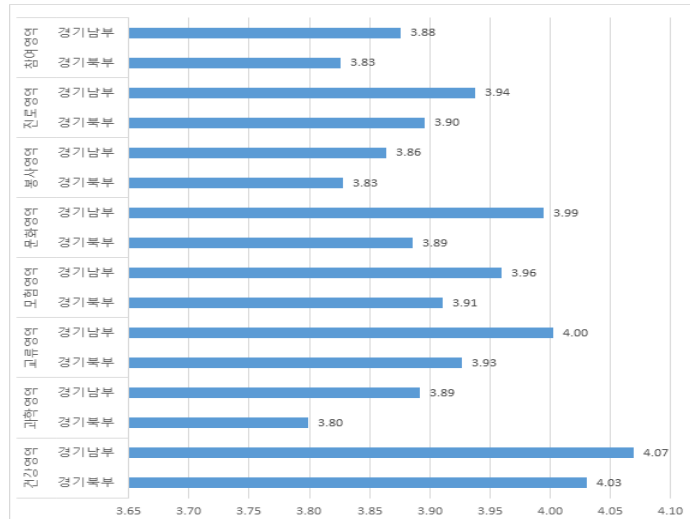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 만족 수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남부 청소년이 경기북부 청소년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 경기남부 청소년 모두 건강영역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만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0) 청소년시설 제공의 청소년활동 만족 수준(경기북부-경기남부)

4)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

경기북부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스포츠 특성화 시설과 진로체험 중심 특성화 시설 이었고, 경기남부 청소년들은 녹음, 제작이 가능한 활동시설과 진로체험 중심 특성화시설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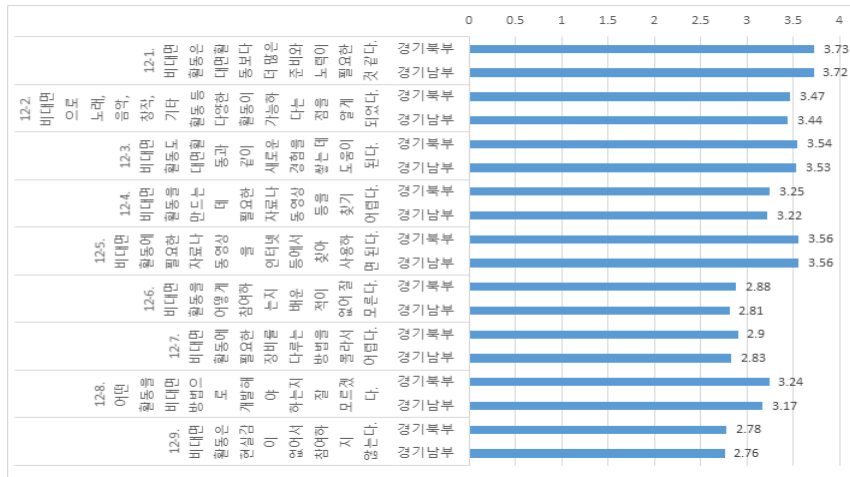


(그림 III-11)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경기북부-경기남부)

했다. 다양한 시설 모두 필요성이 높지만,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비대면활동에 대한 인식

비대면활동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경기남부 청소년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면활동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필요한 자료나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비대면활동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비대면활동에 참여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황에 따라 대면활동 뿐만 아니라 비대면활동의 제공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Ⅲ-12) 비대면활동에 대한 인식(경기북부-경기남부)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이 처해 있는 청소년활동의 수준과 참여실태, 경기북부, 경기남부 청소년의 차이를 파악하여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2,15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활동참여정도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에 있어서 지난 1년(2019년)동안 거주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정도가 여자청소년이, 16세이하 집단이 경기북부보다 경기남부의 청소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용횟수는 15세 이하는 주1회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6세, 17세는 1년에 한두번 이용, 18세이상은 한달에 1-2회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므로 고등학생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경기북부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설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와 선후배를 통해서가 많았고,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일반적활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의 홍보를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참여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발굴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아쉬운 점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을 활용하고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더불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가 가장 높고, 향후 기회가 되면 청소년시설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많으므로 다양한 홍보의 방법을 활용해(이용 청소년의 소개, sns홍보 등) 청소년시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보편적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채우고,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에도, 리더십을 키우는 데에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친구들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시간이 아깝지 않고, 청소년활동이 다른 일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시간이고, 청소년활동이 자신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별에서 보통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것보다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의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연령에 따른 청소년활동 몰입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 청소년들이 경기남부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활동이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활동참여가 시간 아깝게 여겨지고,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경기북부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활동 요구수준에 대한 결과는 건강영역, 과학영역, 교류영역, 모험영역, 문화영역, 봉사영역, 진로영역, 참여영역에서 50%이상의 요구를 보였다. 그 영역 중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 특별한 목적보다는 편안한 쉼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 청소년알바, 노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의 필요와 더불어 학교 등 생활환경에서 고단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알바, 노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알바와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남부 청소년이 경기북부 청소년에 비해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 경기남부 청소년 모두 건강영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건강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만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영역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건강영역과 과학영역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만족 기대가 높았고, 그 외 영역(교류영역, 모험영역, 문화영역, 봉사영역, 진로영역, 참여영역)에서는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만족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 건강영역과 과학영역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령에 있어서는 봉사영역에서 14세이하, 17세, 18세, 19세이상에서 만족 기대가 높았고, 참여영역에서 14세이하, 16세, 17세, 18세, 19세이상에서 만족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봉사영역에서는 15세, 16세는 만족 기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 참여영역에서는 15세의 만족 기대가 낮게 나타나 봉사와 참여영역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북부 청소년에 비해 경기남부 청소년이 교류영역, 모험영역, 문화영역에 만족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이 있으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만족 기대가 다르므로 맞춤형활동의 제공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로활동제공정도에 있어서는 학원 및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지역보다 타 지역에 진로활동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에서 희망하는 진로활동을 건의하면 잘 만들어 주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시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없음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없는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건의했을 때는 잘 만들어 주는 편으로 답해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의 요구가 있으면 진로활동을 제공해 주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섯째, 지역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3D, VR 등 과학정보특성화시설, 댄스 등 문화, 예술 체험가능한 활동시설, 노래, 음악, 창작 등 녹음, 제작이 가능한 활동시설, 게임제작, 웹디자인 등 컴퓨터활용 특성화시설, 유튜브, 방송제작 등의 미디어특성화시설, 암벽, 헬스, 농구 등 스포츠특성화시설, 바리스타, 파티쉐, 패션 등 진로체험중심 특성화시설에 대한 필요를 표현하였고, 특히 진로체험중심의 시설과 스포츠특성화시설의 필요를 가장 크게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 도서관, 연습실, 쉼터 등의 요구가 있어 청소년들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원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녹음, 제작이 가능한 시설, 컴퓨터활용 시설, 미디어시설 등을 원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체험을 하고자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고 싶고,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북부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스포츠 특성화 시설과 진로체험 중심 특성화 시설이었고, 경기남부 청소년들은 녹음, 제작이 가능한 활동시설과 진로체험 중심 특성화시설을 원했다. 다양한 시설 모두 필요성이 높지만,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비대면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도에서는 비대면활동은 대면활동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59.9%), 비대면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47.5%), 비대면활동 또한 대면활동과 같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51.5%) 있었다. 또한, 비대면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다루는 방법, 비대면활동 개발방법 등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청소년이 모든 연령에서 상당수 많았다. 이는 비대면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결과이다. 비대면활동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비대면활동 장비 및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비대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활동에 대해 경기북부, 경기남부 청소년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면활동보다 더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비대면활동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비대면활동의 참여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황에 따라 대면활동 뿐만 아니라 비대면활동의 제공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와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활동 참여를 이끌고, 청소년시설의 홍보를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참여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발굴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경기북부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재미의 요소를 개발하고, 연령에 따른 청소년활동 몰입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만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영역에서도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 특별한 목적보다는 편안한 습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에 진로체험중심의 시설과 스포츠특성화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고,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비대면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와 방안 마련을 통해 비대면활동의 활성화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알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청소년의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경기도 내 지역적 차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주계순 · 권일남 (201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2), 1-25. (Ju GS, Kwon IN. (2018). Effect o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on School Adjustment-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4(2), 1-25)
2. 안재진 · 김선숙 · 이경상 (2017).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1), 85-107. (Ahn JJ, Kim SS, Lee KS. (2017). Effects of the Types of Volunteer Activities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nd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Youth Welfare, 19(1), 85-107). <http://dx.doi.org/10.19034/KAYW.2017.19.1.04>.
3. 권일남 · 전명순 · 김정율 (2019).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의 개념정의와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1-29. (Kwon IN, Jeon MS, Kim JY. (2019). Concep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Youth Self-directed Activity.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5(2), 1-29)
4. 조현주 (2020).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 활동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1), 22-46. (Cho HJ. (2020). A Study on the Social Perception of Youth Activity and Competency based on Big Data.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6(1), 22-46)